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100-250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4-5

TEL.(02)726-1010(대), 1176 FAX.(02)726-1292

연구원 홈페이지(www.sdi.re.kr)를 통해서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도시동향

29

2001년 8월 20일

HEADLINE NEWS

'도시마케팅'으로 외국 관광객 유치 성공 (헬싱키)

핀란드의 헬싱키市가 주요 관광객인 영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핀란드 관광부 런던 사무소, 핀란드 항공사 등과 협력, 영국 관광객·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3개년 관광홍보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이 결과, 영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영국인이 여행하고 싶어하는 도시에 헬싱키가 1위로 선정되고, 여행하고 싶어하는 국가 조사에서 핀란드가 1위를 차지하는 등 이 프로젝트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헬싱키市가 추진중인 관광마케팅은 영국 관광업체가 자국의 고객들에게 헬싱키 여행을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헬싱키市를 비롯, 핀란드의 각 도시들은 그 동안 다양한 볼거리를 개발하거나, 런던에서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해왔다. 여기에다 핀란드인의 친절도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한 몫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헬싱키를 찾은 영국 관광객이 전년 대비 11.5% 증가했으며, 2001년 1~3월 숙박관광객도 전년도 동기(同期)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www.hel.fi/tourism/html/english/uutta/tiedotteet/ENGBritannia.html)

HIGHLIGHTS

도시관리

1 「자동차 무단방치 방지조례」 제정 (교토)
2 자연·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학습 '관광지 개발 (일본 : 시미즈市)
3 홍수피해지역 토지 매입해 유수지로 조성하는 「자발적 토지판매 프로그램」 실시 (포틀랜드)

도시환경

4 저공해 천연가스차 보급 촉진 위해 천연가스충전소 대량 설치 (동경)

도시교통

5 「무인자동징수시스템」 운용하는 톨게이트 대폭 증가 (치바)
6 버스전용도로 금년중 70km까지 대폭 확장 (파리)
7 지하철 민영화 1년 '성공적' (홍콩)

행.재정

8 도시재생 프로젝트 공동추진 위해 7개 都縣市로 「수도권재생회의」 구성 (동경)
9 체류외국인으로 「市政자문위원회」 구성 (파리)
10 e-mail을 통해 행정·지역·교육정보 제공(미국 웨스트 하트퍼드)

사회복지

11 市주최 행사 때 아이 맡아볼 수 있는 자원봉사자 육성 (일본 : 스즈카市)
12 市의회 본회의 개최시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일본 : 아사히카와市)
13 야간에 청소년 '귀가시각' 알리는 종 울려 (시카고)

1 「자동차 무단방치 방지조례」 제정 (교토)

자동차 무단방치나 불법투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 교토(京都)시는 최근「자동차 무단방치 방지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市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노상에 무단방치되었거나 버려진 채로 발견된 차는 760여대로, 전년대비 약 25%(약 156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차는 주로 하천부지나 공원 등 국·공유지에 버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시행 예정인 이 조례(안)은 소유주를 모르는 차의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관련위원회에서 폐기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차 소유주의 신원이 밝혀지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7. 25)

2 자연·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학습' 관광지 개발 (일본 : 시미즈市)

일본 시미즈(淸水)시는 바다, 산, 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체험학습' 여행지를 개발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체험학습' 관광상품으로는 오징어 말리기, 골판지로 카누 만들어 타기, 차잎 따기, 수족관 야간 관리, 시장 견학, 명상과 좌선, 바다 속 체험, 박물관 순회 등 70여 종이 있다. 市는 여행사 직원이나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체험학습 모니터링'도 계획하고 있다. 市의 이러한 프로젝트는 관광업 활성화에도 한몫 하고 있으며, '체험학습'을 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다시 市를 방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사히신문, 6. 29)

3 홍수피해지역 토지 매입해 유수지로 조성하는 「자발적 토지판매 프로그램」 실시 (포틀랜드)

미국 윌래멋강(江) 하류 지역에 위치한 포틀랜드(Portland)시는 홍수로 인한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토지판매 프로그램(Willing Seller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市는 홍수피해가 잦은 토지를 정당한 가격에 매입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그 일대를 유수지, 습지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오염물질을 포함한 초기 강우를 저류(貯流)하거나, 어류 등의 서식지로 활용하고 있다. Johnson Creek 지역이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곳으로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반복되어온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Potland's Clean River Plan, 2001)

4 저공해 천연가스차 보급 촉진 위해 천연가스충전소 대량 설치 (동경)

東京都는 일본 전역에 천연가스충전소가 적기 때문에 천연가스차를 장거리 운송에 도입하는 것을 꺼린다고 보고, 우선 都內 천연가스충전소를 금년중에 39개로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저공해 천연가스차 보급 촉진을 위해 천연가스충전소 설치를 강력 추진해온 都는 都廳 인근에 천연가스충전소를 올해 초에 설치한 데 이어, 미나토(港)구에도 금년도 10월 완공을 목표로 천연가스충전소 설치에 착수했다. **(본지 제10호 「都廳 인근에 천연가스 專用 충전소 설치 (동경)」 기사 참조)**

신주쿠區에 위치하고 있는 都廳 근처에 설치된 천연가스충전소는 1일 최대 80대가 이용가능하며, 미나토區는 18대의 청소차량 전체를 천연가스차로 대체키로 했다. 都內 천연가스충전소는 都가 부지를 제공하고, (주)동경가스가 설치, 운영하게 된다. 천연가스차는 디젤차나 가솔린차에 비해 가격이 높지만, 매연이나 광화학스모그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적고 연비도 낮다. 한편, 都는 (주)동경가스 등과 공동으로 천연가스버스의 차체에 대중교통수단이나 저공해차의 이용 촉진을 호소하는 광고도 부착했다.

(日本經濟新聞, 3. 28)

5 「무인자동징수시스템」 운용하는 톨게이트 대폭 증가 (치바)

치바(千葉) 지구를 포함, 일본 전역 63곳의 톨게이트(요금 받는 곳)에서 지난 3월부터 운용되기 시작했던「논스톱 자동요금지불 시스템(ETC·Electronic Toll Collection)」이 7월 23일부터 3대 도시권으로 확대 적용되어 현재 총 146곳의 톨게이트에서 운영되고 있다. ETC 서비스는 올 가을쯤에는 전국 약 600곳의 톨게이트에서 제공될 예정이며, 2002년 말경에는 일본 전체 톨게이트의 70%에 해당하는 약 900곳에서 ETC가 운용될 전망이다.

(www.mlit.go.jp/road/press/press01/20010622/20010622.html)

6 버스전용도로 금년중 70km까지 대폭 확장 (파리)

파리市의회는 좌파 시장 들라노의 취임 100일에 맞춰, 지난 7월 10일 버스 전용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채택했다. 현재 파리에서는 180km의 버스전용차로가 있으며, 이 중 29km가 버스전용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파리市는 市의회의 결정에 따라 약 1억 프랑을 들여 버스전용도로를 올해 안에 70km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확장될 전용도로는 폭이 4.5m로, 기존 3m보다 넓다. 이는 택시승객의 승하차와 자전거이용 편의를 위한 것이다. 또한 잠깐 동안의 정차를 위해 전용도로를 따라 폭 70cm의 미니 보도를 만들 계획이다. 버스전용도로 확장계획은 녹색당 출신 부시장 드니 보팽이 추진해온 '지상의 진정한 지하철(véritable métro de surface)'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Le Monde, 7. 1)

7 지하철 민영화 1년 '성공적' (홍콩)

홍콩정부는 최근 홍콩 지하철의 건설, 운영, 재정 및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MTR의 민영화가 승객, 주민, 정부 모두에 큰 이득이 된 것으로 평가했다. MTR은 지난해 민간운영체제로 전환되었다. MTR 주식의 23%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공개 매각되었으며, 현재 50만 명이 MTR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홍콩정부는 주식 매각으로 확보한 10억 2천8백만 달러(약 1조 3천억 원)를 주식시장에 다시 풀었다. 2002년 3월에 제2차 주식매각이 예정되어 있다. MTR의 민영화는 도시철도를 공사체제로 운영하는 서울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외철도동향, 제29호, 철도청 기획본부 刊) (www.mtr.com.hk)

8 도시재생 프로젝트 공동추진 위해 7개 都縣市로「수도권재생회의」구성 (동경)

일본 정부의 도시재생본부는 동경만 임해부에서의 광역방재거점 정비나 쓰레기발생제로형 도시 실현 등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최근「수도권재생회의」를 설치했다. 東京都와 치바(千葉)·사이타마(埼玉)·카나가와(神奈川)현에 치바(千葉)·요코하마(横浜)·카와사키(川崎)시의 3개 정령(政令) 지정도시를 더한 7개 都縣市가 국가상설기관으로서「수도권재생회의」를 구성하고,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구체화를 위해 광역조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수도권재생회의」는 국토교통성 장관이 좌장이 되고 각 지자체의 장이 참가하는 수뇌회의와 각 지자체의 부지사 등이 참석하는 조정회의, 각 프로젝트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회 등으로 구성되었다.**(본지 제26호「수도권 광역통합전략을 담은 메갈로폴리스 구상 발표 (동경)」기사 참조)**

동경만 임해부에서의 광역방재거점 정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7개 都縣市간에 협의회가 이미 발족되었으며, 동경만 임해부에 폐플라스틱 및 페트병 리사이클 시설을 건설하고 폐기물발생을 제로로 하는 구상과 관련해 환경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등과 7개 都縣市간에 협의회가 설치되었다. 아울러「수도권재생회의」는 수도권의 광역방재거점 정비와 폐기물발생제로형 도시 조성의 방향·입지·기능 등을 포괄하는 기본구상을 확정했다. 東京都는 이전부터 광역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을 하나로 묶는, 7개 都縣市의 상설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都는 앞으로「수도권재생회의」를 통해 광역 방재·환경대책 추진, 물류기반 정비 등 도시재생정책 실현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日本經濟新聞, 7. 13)

9 체류외국인으로 「市政자문위원회」 구성 (파리)

프랑스 파리시장 베르트랑 들라노에는 31만명에 달하는 파리市 체류외국인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市政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체류외국인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지난 6월 발표했다.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인 12월 10일 정식 출범 예정인 위원회는 남녀 동수로 구성되며, 불법체류자에게도 문호가 개방된다. 市 업무전반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할 위원회는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지방선거권이 모든 체류외국인들에게 확대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Le Monde, 6. 19)

10 e-mail을 통해 행정·지역·교육정보 제공 (미국 : 웨스트 하트퍼드)

미국 코네티컷(Connecticut)州의 웨스트 하트퍼드(West Hartford) 지역에서는 지역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이를 토대로 올해 7월부터 적극적인 주민만족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당국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 웹사이트에서 주민대상 정보제공 메일링 리스트에 회원으로 등록하면 e-mail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제공되는 주민만족서비스는 비즈니스, 주민생활, 교육, 커뮤니티 서비스의 4개 분야로 나누어 제공된다.

비즈니스관련 서비스는 사업 및 상업관련 정보, 개인의 재산관련 서류, 영업지역의 특별 이벤트 등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민생활관련 서비스는 폭설시의 주차문제, 세금감면 프로그램, 납세방법 선택 등과 같은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관련 서비스는 학부모·교사 포럼, 예방접종 일정, 공립학교의 연간 스케줄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커뮤니티 서비스는 지역의 연중행사와 기금 조성, 의회 소식 등을 제공한다.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e-mail을 통해 제공하는 이러한 주민만족서비스는 행정당국이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주민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정보를 다시 회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보수집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홍보와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govtech.net/news/news.phtml?docid=2001.07.11-2530000000002686)

市주최 행사 때 아이 맡아볼 수 있는 자원봉사자 육성 (일본 : 스즈카市)

일본 스즈카(鈴鹿)시는 市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아이를 맡길 수 있는 자원봉사자 육성에 착수했다. 市는 후생노동성 산하기관인 「21세기직업재단」의 강좌를 통해 보육(保育) 전문 자원봉사자 육성에 나서기로 하고, 육아경험자를 대상으로 수강자를 모집, 최근 4일간 10회 강좌를 실시했다. 강좌의 주제는 '아이와 노는 방법', '긴급시 대책과 응급 조치', '아이에게 우유와 밥 먹이기' 등으로서, 현역 보육사, 영양사 등이 강사가 되어 강좌를 진행했다.

市는 여성이 '일'과 '가사'를 동시에 병행하기 위해서는 탁아(託兒)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市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 개최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 5. 24)

市의회 본회의 개최시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일본 : 아사히카와市)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아사히카와(旭川)시 의회는 지난 7월 3일부터 청각장애인을 위해 본회의 진행상황에 대한 수화(手話)통역서비스를 제공, 청각장애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市의회의 본회의를 참관하려는 청각장애인이 수화통역을 원할 경우, 참관 예정일을 市의회 사무국에 제출하면 지역 농아협회가 '수화통역 도우미'를 파견, 수화통역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北海道新聞, 7. 4)

야간에 청소년 '귀가시각' 알리는 종 울려 (시카고)

미국 시카고市는 여름방학 동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 레저 및 스포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과 동시에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야간에 17세 미만 청소년의 '귀가시각'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市는 주중에는 오후 10시 30분, 주말에는 오후 11시 30분에 '귀가시각'을 알리는 종을 울림으로써 부모들에게도 청소년을 집으로 불러들일 때라는 점을 환기시키고 있다. 시카고 경찰이 실제 담당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폭력사건이나 마약복용 등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www.ci.chi.il.us/Mayor/2001Press/news_press_summercurfew.html)